

'배철수의 음악캠프' 25주년 특별 생방송 'Life is Live'를 치상하며

글.
이청재 MBC 기술관리부

출처: rime.news1.com



Deep Purple, Metallica, Jason Mraz, Scorpions, Bon Jovi, Christina Aguilera...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이다. 이들이 방한하여 라디오에 출연하면, 언제나 망설이지 않고 MBC FM4U의 <배철수의 음악캠프>를 선택한다. (이후 줄여서 '음캠'으로 기술) 한국을 대표하는 팝 전문 라디오 프로그램인 음캠은 1990년 3월 19일부터 27년이 넘도록 한국의 대중들에게 다양한 팝 음악을 소개해왔다.

오래 사랑받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친근함에 참신함을 끊임없이 덧붙이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쯤 Refresh 하는 법을 안다. 2년 전 이맘때 25주년 특집 공개방송을 진행하면서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Refresh 되었던 기억을 되살려 본다.

25주년 특집 공개방송 기획회의 당일, 담당 PD가 라디오기술부를 믿고 하고 싶은 기획이 있다며 기획안을 돌린다. 'Life is Live' 타이틀부터 거창하다. 3일간 매일 다른 테마로 밴드로만 구성된 공연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밴드 연



주는 후반 작업을 해야 퀄리티가 좋아진다. 당연히 대부분의 음악 프로그램이 후반 작업 후 방송을 내보낸다. 그런데 ‘생방송으로 2시간 동안 밴드 4팀의 연주를 내 보내겠다.’라 그것도 3일 연속으로…

밴드 교체가 길어져도 방송 시간을 못 맞춰 사고고, 중간중간 끊어 갈 수도 없다. 스텝 간의 호흡이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방송도 매끄럽지 못할 것이다. 선수들은 안다!! 쉽지 않은 기획이라는 것을… 그리고 생방 중에 작은 문제만 생기더라도 욕의 80%는 엔지니어가 먹는다는 것을…

TV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기획이다. MBC의 대표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인 ‘음악중심’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곡 중간 중간은 사전 녹화를 해둔다. 그리고 대부분 MR¹⁾로 노래를 부른다. 퀄리티를 중시하는 ‘나는 가수다’, ‘복면가왕’ 등의 음악 프로그램은 반드시 후반 작업을 거쳐 방송을 내보낸다.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이 기획이 라디오로 오면 큰 메리트가 생긴다. 라디오는 TV와 다르게 청취자들의 피드백이 방송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청취자들이 보내온 ‘라이브 너무 좋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등의 미니 메시지를 배철수 선생님이 소개하면, 현장의 LIVE 느낌을 청취자와 더욱 가깝게 공유할 수 있다. 기획안 그대로 바로 ‘Live is Life’ 다. 좋은 기획안이지만 망설이게 되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음캠’의 청취자, DJ를 닮아 음악을 듣는 귀가 상당하다. 이들을 감탄시키려면 생방이지만 퀄리티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밖에도 고민거리가 한둘이 아니지만, 배철수 선생님의 한마디에 마음은 좀 편해진다. ‘라디오기술부 믿지 않았으면 이런 기획 하지도 않았지…’

부서 내에 팀이 꾸려졌다. 라디오국, 배철수 선생님도 인정하는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드림팀이다. 참가하는 밴드와 연주곡들이 하나둘씩 정해지면서 밴드와 곡 분석이 시작되었다. 테크니컬 라이더²⁾가 나오고 트랙리스트가 정리되면서 방송일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 언제나 부족한 게 시간이지만, 국내 최정상급 밴드들의 공연이라는 점과 25주년 기념 공연이라는 중압감이 더해져 준비는 더더만 진다.

드디어 방송 첫째 날 아침, 기본 세팅은 전날 완료했지만 시작은 이제부터다. 밴드 4팀의 리허설 시작, 팀당 방송시간 30분씩 3~4곡을 연주한다. 밴드별 악기 세팅부터 약 15곡을 모두 리허설하면서 소리를 만들어 나간다. 밴드 구성도 브라스 밴드부터 집시 음악까지 다양하다. 팀원들은 작은 호흡까지 AMU³⁾에 녹여 내느라 정신이 없다. 보이는 라디오로 현장 중계를 준비하는 iMBC, 준비 과정을 지켜보는 보직부장들, 아침부터 시작된 리허설 시간은 방송 전까지 계속 이어졌고 금방 지나갔다.

대략 8시간의 리허설이 끝나고 오프닝이 시작되었다.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만 잘 끼면 뒤는 술술 풀려나가지 않던가? 25



FM4U 저녁 6시~8시 | 진행 : 배철수 | 연출 : 김현경 | 작가 : 김경옥, 배순탁



년 동안 사용한 시그널인 'Satisfaction'을 브라스 밴드 '킹스턴 루디스카'가 연주하면서 DJ 배철수의 멘트가 시작됐다. 오케스트라 반주를 가미한 원곡 못지않은 박력을 보이며 매우 성공적인 오프닝을 열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

'킹스턴 루디스카'를 시작으로 새 보컬 김동명과 함께 서정적인 ROCK 음악을 들려준 '부활', 집시 기타의 거장 '박주원'이 뒤를 이어 무대를 장식했다. 대미는 2015년 올해의 음악인에 빛나는 '이승환'의 몫이었다. '이승환 밴드'는 분위기를 최고로 띄웠고, 현장과 인터넷상 분위기 모두 뜨거웠다. 방송을 마칠 때까지 작은 사고도 빼격거림도 없었다. ONAIR 등이 꺼지고 관객들이 기립 박수를 할 때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에 제작진들도 돌아가면서 포옹을 했다.

전날의 피로가 아직 남아있는 둘째 날, 이날은 정신없이 말 달리는 하루였다. '김바다'와 재결합 후 처음으로 라이브 무대를 갖은 '시나위'를 시작으로 '크라잉넛', 'H2O', '넥스트'까지 모두 ROCK으로 하나 되어 팬들을 마음을 사로잡았다. 배철수 선생님도 방송이 마음에 드셨는지 생방송 중에 사연을 소개하며 엔지니어에게 감사를 표했다.

"최혜리 씨가 '오늘 소리가 왜 이리 좋아요? 감동받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라디오를 못 듣고 있기 때문에 라디오로 얼마나 좋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MBC 라디오 엔지니어들은 최고거든요!! 박수 한 번 주세요~~~"

특집 공개방송 3일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 다양한 소리를 담아야 했던 둘째 날도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제 하루 남았다!!

드디어 마지막 날, 같은 일을 3일째 반복하고 있지만 리허설 시간은 역시나 빠듯하다. 셋째 날 라인업은 개성이 강해 섬세함이 요구되었다. '장기하와 얼굴들'을 시작으로 배철수 선생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은 국악밴드 '타니모션', 팝 재즈로 해외까지 진출한 '윈터플레이', 그리고 라이브의 끝판왕 '강산에 밴드'가 3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었다.

3일간의 생방송이 종료되었다. 다음날 방송 준비로 첫째 둘째 날에는 없었던 앵콜 공연도 있었다. 제작진들도 손을 놓고 맘 편히 공연을 관람했다. 방송에 나가지 않은 '강산애 밴드'의 앵콜 라이브도 너무 좋았다. 역시 끝판왕답다.

3일간 12팀의 국내 최정상급 밴드의 라이브 공연을 생방송으로 진행한 이번 공연은 라디오국뿐 아니라 우리 라디오기술 부에게도 소중한 자산으로 남았다. 'Live is Life' 특별 생방송은 부서 전체가 합심하여 이룬 성과다. 생방송에 참여하는 밴드 분석과 방송 모니터링에 모든 스튜디오 근무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었고, 주조정실 근무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상황 준비 및 회선체크 등에 최선을 다해주었다. 여러 파트의 유기적인 노력으로 성공한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한다.

'음캠'의 배순탁 작가는 'Live is Life' 관련 기고문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3일간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엔지니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단언컨대, 이번 25주년 기념 콘서트의 숨은 주역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다."

참고로 <배철수의 음악캠프>는 한국방송대상 '라디오 작품상'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3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등을 수상하였다.



- 1) **MR** : Music Recorded의 약자로 말 그대로 녹음된 음악이다. 보컬 없이 녹음된 반주를 보통 MR이라고 한다.
- 2) **테크니컬 라이더** : 공연자와 기술진 간 주고받는 공연에 필요한 기술적 제반 사항이 기록된 서류들. 예를 들면 큐시트, 악기 리스트 등을 테크니컬 라이더라고 한다.
- 3) **AMU** : Audio Mixing Unit의 약자이다. 여러 가지 음성을 공급받아 그 소리를 혼합하여 녹음 또는 재생하는 방송기기로 믹서, 콘솔이라고도 한다. 

